

호가북:

연길을 사람마다 선호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2024년 '연길록화미화' 행동사업추진회가 4월 15일 연길에서 거행됐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이며 '연길록화미화' 행동지도소 조장인 호가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문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연길록화미화' 행동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춰 4대 록화미화 프로젝트를 힘써 실시하고 5갈래의 막힌 도로를 소통하며 8개 왕흥 필수방문지 새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연길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마다 선호하는 도시로 건설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로 하여금 신변의 변화를 느끼고 고품질 생활을 누리게 해야 한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이며 '연길록화미화' 행동지도소 조장인 호가북이 회의를 사회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 주정협 주석 강기방이 회의에 참석했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연변은 '연길록화미화' 행동을 도시환경 질을 제고하고 대중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문화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식별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 담체로 간주하면서 도로록화, 경관록화, 강변록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했다. '두 갈래 강으로 견인하고 연결점으로 지행하며 록화로 둘러싸고 유원지가 밀포된' 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됐고 '1년에 돌파가 있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수행했다는 사회각계와 여러 민족 대중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각지 관광객과 연변에 온 객상들의 광범위한 찬양을 받았으며 연변의 식별도, 호강도,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변경지역의 인기를 모으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다그치며 더 많은 프로젝트의 착지를 추동하는 유력한 버팀목을

4대 '록화미화' 프로젝트 실시, 5갈래 막힌 길 관통, 8개 왕흥 필수방문지 새 랜드마크 조성

제공했다. 성과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현재 사업에서 록화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더럽고 어지럽고 차한'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며 사업기계가 완벽하지 못한 등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방향으로 삼고 목표 견인을 강화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연길록화미화' 행동을 실시한 두 번째 해이고 이 행동이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주 직속, 중앙, 성 직속 부문과 연길시에서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강화하고 국가급 삼림도시 건설을 목표로, 왕흥 필수방문지 도시 유지를 인술로, 록화망, 도로망, 수로망, 배관망 중점대상 실시를 버팀목으로, 도시 정밀화 관리를 보장으로 하여 총괄적 계획, 전반적 추진, 중점 돌파를 견지해야 한다. 4대 록화미화 프로젝트를 힘써 실시하고 5갈래 막힌 도로를 소통하며 8개 왕흥 필수방문지 새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연길록화미화' 행동이 새 진전, 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함으로써 아름다운 비전이 하루빨리 나타나 대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해야 한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록화량은 '연길록화미화'의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바 반드시 중대시

정 기반시설 대상을 단단히 틀어쥐고 일련의 대표적 프로젝트를 다그쳐 실시하여 록화망, 도로망, 수로망, 도관망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변 록화미화 공사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부르듯하 종합정비 대상은 합성고무인도, 미니공원을 다그쳐 건설하고 랑안 연선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경관을 보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새 공간을 조성하여 '물이 맑고 강변이 푸르며 수로가 원활하고 경치가 수려하며 사람들이 조화로운' 록수화랑을 일층 조성해야 한다. 연접하 행복하호 대상은 무지개다리, 영빈교, 공원다리 등 연접하 랑안의 야경조명 효과를 향상시키고 일련의 특색이 선명한 '강문화' 관광지를 건설하며 대중들의 집안 앞 물가 공간을 일층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비물오수분류 공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백산로, 국자거리, 광명거리 등 19갈래 주요 및 차요 도로의 비물오수 분류 개조 임무를 완수하고 독립적인 비물도관망과 오수도관망을 다그쳐 건설하며 현유의 배수 시스템을 힘써 개선하고 연길쾌속버스 2기(BRT) 대상건설을 련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도시구역의 거주생활 질과 생태환경 질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 유원지광장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원지광장 건설과 도시경관행동, 도시개발건설을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유원지, 와룡 유원지, 연접석류홍 주제 유원지, 연화로 수상유원지, 리화로 유원지, 지하락원지, 태덕관당 유원지, 광진거리 미니공원, 조양거리 유원지, 광진북거리 도로변 록지 등 10개의 신설 유원지 건설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며 배치가 균형적이고 기능이 구전하며 주제가 두드러지게 건설하여 시민, 대중들이 휴식하고 운동하는 새 행선지로 힘써 조성해야 한다. 중점 거리 도로의 록화공사를 잘 틀어쥐어야 한다. 연길 주제 기업들이 장백산로, 연남로, 국자거리, 동해로, 애단로, 쌍웅거리, 인민로, 남산거리, 신촌로, 연대거리 등 10갈래 주요 거리 록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사회각계에서 도급 맡고 록화에 일조하며 건설,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질은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길록화미화' 행동은 각 직급, 부서와 관련된 체계적 프로젝트로서 각급, 각 부문의 밀접한 배합과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연길 주제 중앙, 성 직속 및 주 직속 부문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주동적으로 사업하며 자금, 건설, 관리, 유지보수 등 면에서 중점적으로 돌보고 우선적으로 지지하여 '연길록화미화' 행동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문 앞 3가지 보장' 책임을 엄격히 사달해야 한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부장, 주검찰원 검찰장,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서장, 주 직속, 연길 주제 중앙, 성 직속 각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 당위 분관 책임자, 각 현, 시 정부 분관 책임자, 연길시 해당 시 직속 부문, 각 향진, 가두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리전기자



연길, 올해 11개 유원광장 건설



▲ 자형원 유원지 효과도

올해는 '연길록화미화'를 실시하는 관건적인 해이다. 연길시는 '연길록화미화'의 주요 전장으로서 중점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발휘하여 올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다지기 주제 유원지, 광진거리 미니공원, 자형원 유원지 등 11개의 유원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연길 자형원은 이미 예전에 비해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장은 이미 흙으로 피메워졌고 땅도 평평하게 고르려진 가운데 일꾼들이 버드나무, 해당 등 교목들을 심고 있었다.

중방생태환경건설유한회사 설계사 우해양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형원 유원지의 총면적은 약 1헥타르이며 주요 봉사 군체는 주변의 주민과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마중하고 바래다주는 학부모들이다. 이번 디자인의 영감은 장백산 수림 아래 공간의 축도에서 비롯되었는데

유원의 여름 나무, 송석산수의 컨셉 한 지형을 쌓아 장백산맥의 자연적인 기복을 모방했다. 전체적인 설계는 자연적으로 기복이 있는 지형 풍격을 채택했고 구불구불한 오솔길



▲ 시공현장

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속을 천천히 거닐도록 이끌어 숲속 산책의 자연미경을 이룬다. 이는 또한 주변 주민들에게 식사후 한가로운 숲속을 거닐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광공간을 제공한다. 흑송, 갈참나무 등 높고 큰 교목이며 색깔의 해당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을 방불케 한다.

연길시는 올해 자형원 유원지, 로동미 유원지와 같은 도시 록지 11개를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건설된 유원지까지 2년 사이에 도합 25개의 록화유원지가 새로 추가된다.

/리전기자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연길록화미화' 대상건설 다그쳐 군중 행복감과 획득감 제고해야



'연길록화미화' 행동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당위와 정부가 전반 국면에 밀착하여 결정하고 실시하는 하나의 중대한 사업임무이며 수부 도시의 풍채를 보여주고 연변의 명예도와 영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담체이다.

2022년 12월이래, 연변에서는 '연길록화미화' 행동의 전개를 중대한 민생공정으로 삼고 도시 생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도로 하고 록화망, 도로망, 수로망, 배관망 대상건설을 지령으로 하며 국가삼림도시 창조를 목표로 도로록화, 경관록화, 강변록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유원광장을 건설하며 정품거리를 건설하고 록미경관을 건설하며 도시의 '홍터'를 치리하고 왕흥출체지를 출시하여 도시의 록화, 량화, 미화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길에 와서 연길에서 만남, 화기에 애, 미식 집결, 남다른 연접...' 등 조형물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패션, 왕흥 등 요소가 집결된 경관소품들로 하여 연접거리는 새로운 왕흥 필수지로 되었다. 시민 강녀사는 집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아주 잘 건설했습니다. 여기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유쾌합니다.'라고 칭찬했다.

2023년 8월 중순부터 연길시는 연접거리, 소시장거리, 리화로 등 3개 특색거리에 대해 개조, 승급을 진행했다. 현재, 3개 거리는 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록색식물이 늘어나면서 연길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하고 있다.

연길시는 '연길록화미화' 행동에서 도시의 고질병을 효과적으로 정돈하고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여러 관련 부문에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력사적 문제를 다그쳐 치리하며 강도를 높여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여 '연길록화미화' 행동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요구했다. '순찰하면서 선전하고 정돈하는' 사업 사료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야와 간판, 현수막, 광고 부착 등 현상을 전면적으로 다스려 도시의 면모를 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연길록화미화' 대상건설을 다그쳐 추진했다. 연길시 관련 부문은 서산거리, 소화원, 가정 주제 유원지 등 신축 거리와 유원지에 대해 록화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동시에 록화 설계방안을 한층 더 수정, 보완하고 록색식물의 층차감, 종의 다양성, 색깔의 풍부성을 증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록미경관 효과를 질실하게 제고했다.

도시구역의 로후, 파손 도로를 복구하고 이동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다. 소시장거리, 리화로, 연화거리, 삼꽃거리, 우의로, 인민로 등 6개 거리에 대한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연길록화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 주 여러 부문은 상징성 록미 정품 건설에 목표를 두고 유원광장 신축 개조, 주요 도로 록화 품질 제고, 도시 출입구 록화경관 건설 등 중점 대상건설을 다그쳐 실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길시사업초원국과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길시수리국, 연길시교통국 등 4개 부문은 45개의 유원광장을 신축, 개조하고 공원으로, 애단로, 중환로 4기 등 18개 주요 거리의 록화를 제고시켰으며 소시장거리, 리화로, 연접거리 등 3개 특색거리를 개조하고 연길대교, 연천교, 연서교 등 7개 교량과 장백산로, 광명거리, 인민로 등 5개 거리 및 4곳의 교통순환도로를 꽃으로 장식했다. 현대국제, 남쪽 출구, 모야산 등 3곳에 화해경관을 건설하고 루계로 각종 교목 2만 7,000여그루와 화초 560만여그루를 심었다. 이로부터 도시의 록색식물이 효과적으로 늘어나고 도시의 생태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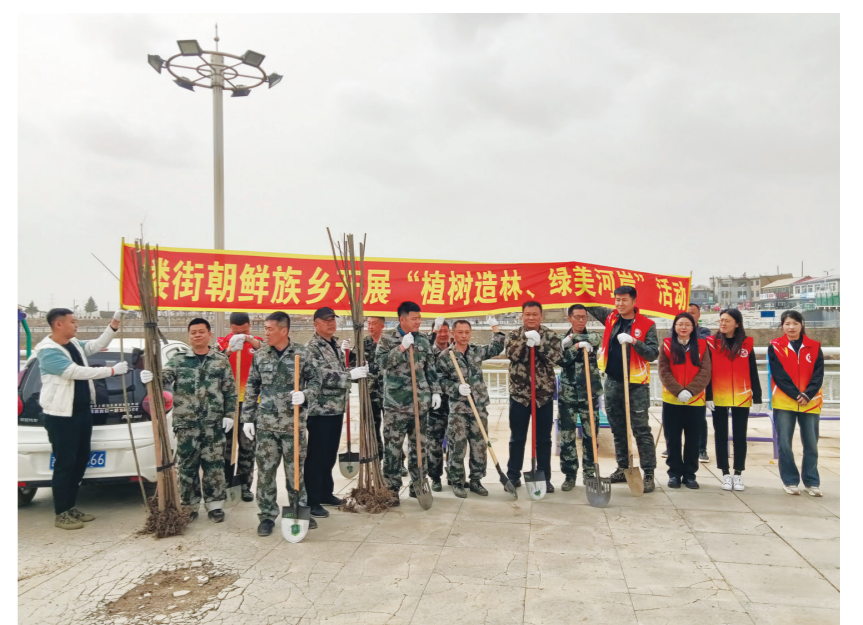
2024년은 '연길록화미화' 행동을 실시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연길시는 '연길록화미화' 행동의 주전장으로서 중점을 뚜렷하게 하고 힘을 쏟으며 유원광장의 신축, '단두로'의 원활, '2개 주랑 견인' 공정 등 록화미화 대상건설을 다그쳐 전면적으로 도시 면모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연길시를 눈과 마음이 모두 즐겁고 사람마다 마음에 들어하는 매력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화넷



식수조림으로 조선족향 환경 더 쾌적해져

— 휘남현 루가조선족향 당원간부와 자원봉사자 300여그루 식수



4월 16일,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착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실천하며 루가조선족향의 생태환경을 한층 더 록화, 미화하기 위해 전날 내린 비물이 가져다준 좋은 습도와 좋은 시기를 틀어쥐고 신속히 행동, '식수조림, 록미강인' 활동을 전개하여 이 조선족향의 생태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했다.

식수 현장에서 40여명 당원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은 저마다 열의가 넘쳤는데 앞다투어 호미를 휘두르고 삽질하며 묘목을 나누어 정식하고 묘목을 주축하여 구멍이를 때우며 물을 부어 관개했다. 당원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이 앞심들어 심은 300여그루의 묘목들은 바람을 맞으며 일떠섰고 봄날의 해별을 받으며 왕성한 생기를 보여주어 루가조선족향에 새로운 풍채를 더해주었다.

루가조선족향은 록색생태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봄철 록화를 생태 개

선, 주거환경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최대한 록화를 많이 하고 당지 실정에 맞으면서도 특색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러 촌의 실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촌 더 록화, 미화하기 위해 전날 내린 비물이 가져다준 좋은 습도와 좋은 시기를 틀어쥐고 신속히 행동, '식수조림, 록미강인' 활동을 전개하여 이 조선족향의 생태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했다.

다음 단계에 루가조선족향은 계속하여 '록수정산은 바로 금산은산이다'는 리념을 계승하고 전 향 상하가 실제 행동으로 농촌 록화에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인도하며 '록색 심기, 록색 보호, 록색 애호'의 문명한 새 기풍을 형성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 현의 생태문명 건설에 루가조선족향의 힘을 끊임 없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왕우주(王秋雨)

